



## 재속 프란치스코 토론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Secular Franciscan Order St. John Vianney Fraternity of Toronto

형제회: 성 김대건 성당 849 Don Mill Rd, Toronto, ON M3C 1W1

연락처: 22 Royal Palm Dr, Thornhill, ON L4J 5R3

Tel: 905-889-6518 E-Mail: johnvianney@hotmail.com

형제회 일시;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00 시

제 35 호

6 월 형제회 소식

2008 년 6 월 28 일

### 오늘 월례회 순서

- 오전 10 시 - 리따 수녀님 영성 강의
- 오전 11 시 - 미사
- 오전 11 시 45 분 - 월례회
- 오후 1 - 친교

### 형제회 소식

- 다음달 월례회는 7 월 26 일(토) 한맘 성당 에서 오전 10 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 정춘기 요세피나 자매님(88 세)께서 6 월 19 일 선종 하시어 모든 회원들의 협조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6 월 8 일, Trillium 지구 형제회의 선거에서 회장 Debbie Tessier (3 선), 부회장 Michel Gulmette (유임), Colleen MacAllister 를 비롯한 새로운 평의회원이 선출되었습니다.
- Peace Camp (7/8~7/9)참가안내 (부회장이 설명 예정)  
등록 : colleen.foundations@hotmail.com

###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정춘기 요세피나 자매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위하여...
- 형제회 모든 회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 프란치스코의 올바른 삶

(영적보조 김은숙 리따 수녀님의 양성반 일일  
피정 강론을 요약, 발췌한 것임)

하느님은 세찬 바람, 불, 지진과 같은 강함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니다. 부드러운 미풍 속에 계셨습니다 (열왕기 상 19:9-16). 우리는 항상 크고, 위대하고 장엄한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또 큰 것을 기대합

니다. 집에서 감자를 깎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런 작은 일상들 안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작고 평범한 것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프란치스코들은 이렇게 작고 보잘 것 없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개혁, 쇠신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사부 프란치스코 성인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영성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저는 자주 우리 재속회 회원들에게 프란치스코 영성이 좋긴 한데 살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들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부님이 여러분들에게 수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같이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 쇠신시킬 수 있는 그분의 영성을 재속 신분에 맞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는 좁은 의미에서의 '수도자'는 아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모두 하느님 말씀에 따라 그분의 길을 걷는 '구도자'이고 '수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부님처럼 우리의 생활을 개혁, 쇠신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도 바오로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의 회개 체험처럼 어떤 극적인 것이기보다는 보통은 길고 일상적이고 지루하거나 고통스럽기까지 한 길이고 과정입니다.

쇠신의 근거는 '복음' 자체입니다. 복음 정신대로 살기 위해 전통적으로 교회는 복음 삼덕(청빈, 정결, 순명)을 강조해왔는데 수도자만이 하는 복음 삼덕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을 넘어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해 주는 것이 청빈이고 더 나아가서는 소유하려는 우리의 욕망을 바치는 것입니다. 정결은 부부간에 오로지 상대방만을 사랑하고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며 그 사랑을 통하여 사랑이신 하느님을 알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순명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므로 매사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도록 촉구하는 것이 순명 덕의 정신입니다. 이런 복음 삼덕의 추구가 얼마나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하느님 뜻에 맞게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쇠신과 회개의 길고 힘든 지루할 수 있는 길에 우리가 지쳐 포기하지 않고 항구할 수 있도록 사부 성 프란치스코에게 전구를 청해야겠습니다.

## 회계 보고

2008년 5월 31일 현재

내역	전월 이월금	월 수입금	월 지출금	현 잔고
회비	\$6,348.96	\$1,005.00	\$435.03	\$6,918.93
선교 후원금	\$3,080.43	\$390.00	0	\$3,470.43
도서 구입	\$557.19	\$88.00	0	\$645.19

## 사부님 영성의 향기 (3)

### “성 비오 신부님의 오상”

루피노 형제가 한번 거룩한 사람을 문질러 주려고 그의 가슴에 손을 댔을 때에 루피노의 손이 우연히 프란치스코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 보배스러운 상처(오상)를 건드리게 되었다. 손이 닿자마자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은 몹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의 손을 밀어냈다. 그리고 하느님께 루피노 형제를 용서해 주십시오 소리쳤다. (1 켈라노 95)

금년은 우리와 한 시대를 같이 사셨으며 50년 동안 오상을 지니신 것으로 유명한 카프친 작은 형제회

소속의 성 비오 신부님께서 선종 하신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0주년을 맞이하여 성 비오 신부님의 유해를 발굴하였는데 선종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수염의 털 끝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시다. 아무 방부제 처리도 하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유해가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은 하느님께서 믿음 없는 이 시대를 위하여 보여주신 기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부님의 오상이나 성 비오 신부님의 오상을 생각할 때, 하느님의 은총과 영광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엄청난 은총 뒤에 숨겨져 있는 육체적 고통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한 때는 오상의 상처가 아프지는 않고 그저 형태로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번은 어떤 여인이 오상의 상처도 아프냐고 묻자 비오 신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님께서 이걸 내게 장식으로 주신 것 같소?” 다른 사람은 또 이것이 궁금했다. “비오 신부님, 얼마나 아프신데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보세요, 굵고 네모 난 못을 손에다 대고 망치로 힘껏 때려 박은 다음에 그 못을 뺄 뻔 돌려 보란 말이요. 꼭 그만큼 아파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미사 때와 단식 때는 그 고통이 훨씬 더 심했다. (중략)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오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전율할 경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상기시키는 표지이다(‘우리시대의 형제 비오’에서 발췌함).

하느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는 고통 뒤에 숨겨져 있는 큰 은총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프란치스코들도 선택 받은 사람들이니 주님께서 주시는 고통을 기쁘게 감내합시다!

